



ESG 대출 글로벌 최우수 은행 · 단기투자상품 글로벌 최우수 은행

세계가 인정한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2024 November Vol. 236

CEO REPORT

CEO STORY

노영일 주식회사 예컨 대표
자연과 디자인 기술의 접목으로
공간의 가치를 높이다





COVER STORY

(주)예건은 다양한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에서 환경친화적이고
독보적인 조정 시설로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 CEO REPORT>
지난호 보기



찾아가는 이메일
서비스 구독 신청



SPECIAL THEME

- 04 **THEME ①**
미국 '빅캣' 금리인하...세계 금융시장 파장은?
- 08 **THEME ②**
미국 금리인하... '고금리 부담' 韓 내수에 숨통 트이나?



- 24 **GLOBAL ISSUE**
'4전5기 성공' 日 차기 총리에
이시바 시게루 선출
- 28 **Trend Pick**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의 근거들
- 30 **INDUSTRY REPORT**
여집합에서 답을 찾다
- 34 **in FUTURE**
암 정밀 타격, 차세대 항암제
'ADC' 바이오 기술
- 38 **MONTHLY INSIGHT**
함께 나아가는 힘을 길러라!
상산^{常山}의 술연^{率然}
- 42 **about TAX**
CEO 정기보험,
실익이 있을까?



- 44 **about LABOR**
권고사직 관련 노무이슈
살펴보기
- 46 **CEO툰**
'컴퓨터 천재'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 48 **ECONOMIC REVIEW**
한 눈에 읽는 경제 동향
- 50 **IBK SUPPORT**
중소기업을 위한
One-Point 경영컨설팅

발행일 2024년 11월 8일(통권 236호) **등록번호** 서울중 라 00429 **발행인** 김성태 **편집인** 김규섭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Tel** 02-729-6385 **Fax** 0505-077-0850 **기획** IBK경제연구소 **제작** 경성문화사(02-786-2999)
※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비매품**

2025년 <CEO리포트> 발송대상 개편 안내

항상 <CEO리포트>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CEO리포트>는 2025년부터 점진적인 웹진 전환에 따라
실물잡지에 대한 발송대상 개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잡지를 실물로 받아보고 싶으신 경우 IBK경제연구소(ibktax709@ibk.co.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CEO리포트>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 12 **CEO STORY**
노영일 주식회사 예건 대표
자연과 디자인 기술의 접목으로
공간의 가치를 높이다
- 18 **IBK & START-UPS**
배형성 대표, 전진훈 대표
김광 대표, 박현수 대표
- 22 **IBK EXPLORING**
IBK가 만난 이달의 기업들





미국 '빅컷' 금리인하... 세계 금융시장 파장은?

미국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물가상승률은 하락함에 따라 미국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됐다. 미국 금리인하로 여타 국가로 자금이 유입되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수 있다. 다만 미국경제에 내재된 높은 불확실성은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다. 아울러 미국의 최종금리 수준이 예전에 비해 높을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 실장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거시경제, 국제금융을 연구하고 있으며,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 국민일보 경제시평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빅컷의 배경

9월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드디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것도 '베이비 스텝'(0.25%p)이 아니라 한꺼번에 0.5%p를 내렸다. 미국의 기준금리(이하 상단 기준)가 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이번 금리인하는 고금리 기조를 마침내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만 금리인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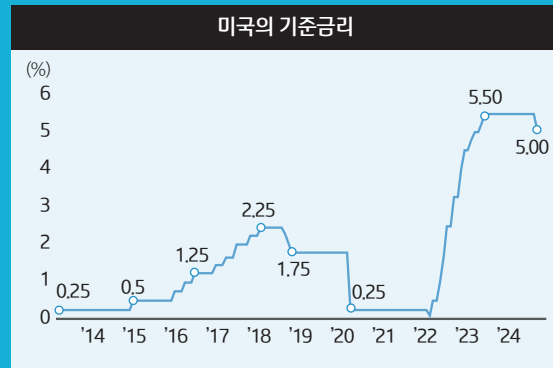
미국의 이른바 '빅컷'(0.5%p 금리인하)의 배경은 무엇일까?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목적은 고용 최대화와 물가안정이다. 미국 CBO(의회예산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 따르면 미국의 중장기적 실업률은 4.4% 정도인데, 2022년 들어 미국의 실업률은 4%를 하회했다. 반면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2021년 4월에 4%를 넘어섰으며 2022년 6월에는 9.1%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양호한 상황에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빅 스텝'(0.5%p)과 '자이언트 스텝'(0.75%p)으로 금리를 0.25%에서 5.5%까지 빠르게 올렸다. 연준은 금리인상을 통해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물가가 안정되기를 기대했다. 이러한 높은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업률이 유지됐으며, 물가상승세도 서서히 둔화했다.

2024년 6월 이후에는 실업률이 4%를 웃돌았으며 물가상승률은 2%대로 하락했다. 여전히 실업률이 낮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인 2%보다는 높지만, 기준금리를 5.5%보다 낮게 유지하더라도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연준은 금리를 내렸다. 고금리 지속에 따른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부각됐던 점도 금리인하의 주요인이었다. 최근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다시 하락하고, 지난 10월 IMF가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2024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하는 등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양호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이 반영돼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가 더터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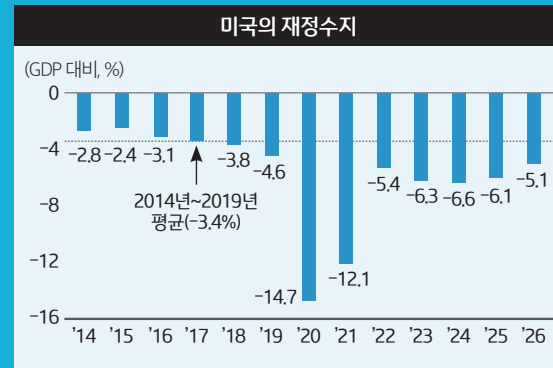
유로존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국은 높은 금리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높은 성장세 원인으로 대규모 이민자 유입에 따라 노동력이 풍부해졌으며, 떠오르고 있는 AI 산업에서도 미국이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과거에 비해 큰 규모의 지출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에도 정부 적자가 과거 평균(GDP 대비 3.4%)의 두 배에 육박할 전망이다. IMF에서도 미국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다.



자료: 블룸버그



주: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 기준임.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 예산관리실

이처럼 재정정책이 확장 기조로 운용됨에 따라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충분히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긴축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의 기대와 같이 미국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경제의 다양한 충격을 고려하면 이를 달성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통화정책의 영향이 강해지면 경기 침체가, 재정정책의 영향이 강해지면 고물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기와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통화정책의 흐름을 예상하기도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기도 했다. 실제로 2022년 말에는 금융시장에서 미국 연준이 2023년 중순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전망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최근에도 미국의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미국의 금리 정상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세계 금융시장 긍정적 영향 받을 것

코로나19 이후 미국 통화정책은 정책목적인 고용 최대화와 물가안정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기보다는 극단적인 위험을 피하는 데 더 중점을 둔 것으

로 보인다. 통화정책이 고용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선제적 정책이 절실하다. 그러나 미국 연준은 다소 늦게 정책을 전환하는 경향이 있었다. 2021년 초 이미 가파른 물가 상승에 대한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은 2022년 3월에 시작됐다. 그 후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하다보니 금리인하가 늦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경기침체 위험을 고려하는 경향이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하는 미국경제에 긍정적 요인이다. 금리인하에 따라 미국 내수가 개선될 뿐 아니라, 달러화 약세로 미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다. 미국경기 개선은 대체로 세계경제에도 긍정적일 것이다. 다만 미국 금리인하의 근원이 미국경기 둔화라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 경기둔화는 세계경제에도 부정적일 것인데, 미국 금리인하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중국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미국수출을 확대하며 성장세를 유지해 왔던 우리 경제에도 미국경기 둔화는 작지 않은 부정적 요인이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세계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미국 금리가 높을



경우 글로벌 자금이 수익성을 추구하며 미국으로 향함에 따라 여타 국가에서는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 미국 금리가 낮아진다면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되고 수익성이 높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처럼 미국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은 세계 금융시장에도 불안 요인이 된다. 미국의 금리인하와 일본의 금리인상이 맞물리면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와 괴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 금리인하의 근원인 미국의 경기둔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기둔화는 미국 기업실적 악화를 의미하므로 미국 금리인하가 반드시 주식시장에 좋은 신호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세계 주요국의 금리인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유로존의 중앙은행인 ECB를 비롯해 다수의 중앙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금리인하가 이를 가속화할 수 있다.

미국 사례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점

최근에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내릴지에 대한 논쟁도 활발하다. 과거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장기적으로 2.5%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연준 위원들의 설문조사에서는 미국 기준금리의 장기적 수준이 2.9%로 상향됐다. 미국경제가 역동성을 유지한다면 자금 수요가 확대되면서 금리 수준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미국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최종 금리는 과거보다는 높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 사례가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선 거시정책의 주요한 두 축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미국보다 정도는 약하지만 한국도 높은 기준금리와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긴축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안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국가에서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금융안정도 통화정책의 주요한 목적으로 설정돼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고려하면서 다른 국가에 비해 금리 인하를 늦게 시작한 측면이 있다.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에는 통화정책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거시건전성정책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미국 금리인하... ‘고금리 부담’ 韓 내수에 숨통 트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년 6개월 만에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금리인하 기대감도 커졌다. 수출 주도 경기회복 온기가 좀처럼 내수로 번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내수부양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빅컷 금리인하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경제학 박사로 한국경제학회 회장, 아시아금융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내 내수 침체의 배경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는 침체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내수 침체는 서민을 비롯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의 매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 연체율을 높여 금융부실을 확산시킬 수 있다.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원인은 먼저 수출의 낙수효과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수출이 늘어나면 그 영향이 다른 산업으로 파급되는 낙수효과로 내수가 살아나게 된다. 올해 우리 수출은 성장률이 작년의 1.4%보다 높은 2.5%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의 낙수효과가 작아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배경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소비여력이 감소하는 데 있다. 채소와 농산물, 외식가격 등 높아진 생활물가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서비스 가격 또한 높아 국내소비보다는 해외소비가 늘고 있다. 여기에 고금리로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여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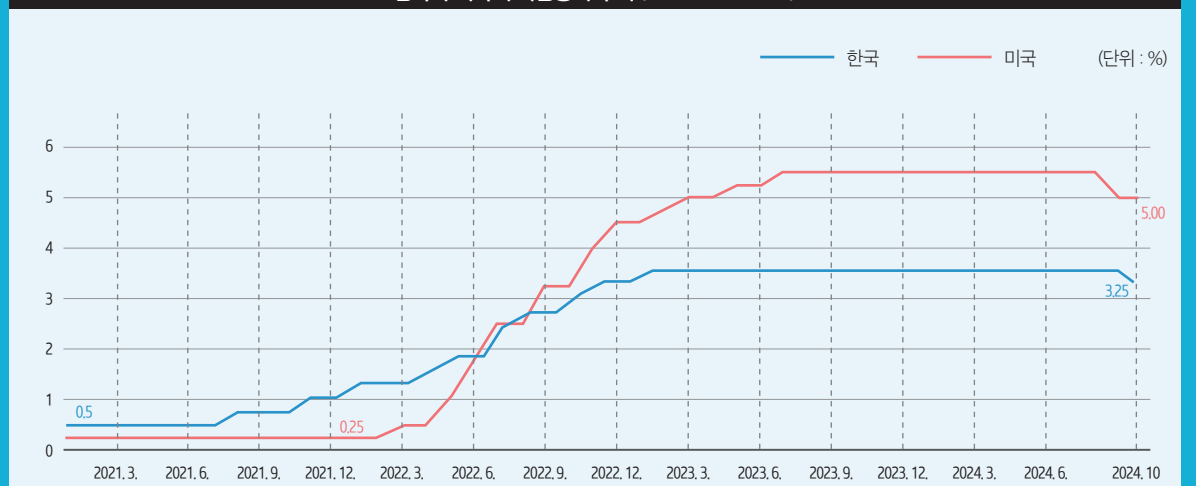
줄어든 것도 내수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미국 금리인하, 국내에도 영향 줄 것

침체된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로 확대 재정정책보다 금리인하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재발과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로 그동안 금리인하에 신중해 왔다. 그러나 9월 물가상승률이 1.6%로 낮아지고 미국이 정책금리를 0.5% 포인트 큰 폭으로 인하하자 최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다. 실제로 금리인하의 내수부양 효과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속도에 달려 있다. 큰 폭의 금리인하, 즉 저금리 기조가 정착될 경우 내수가 부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책에 있어 물가상승률과 경기침체 여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 그리고 미국 금리인하 속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다.

먼저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우리가 겪은 인플레이션은 비용상승형으로 경기는 침체 국면에 있는데 환율과 원유·원자재가격이 올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 (2021.1-2024.1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물가가 높아졌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것도 환율과 국제원유가격이 안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동사태로 국제유가가 오르거나 미국의 고금리와 강달러로 원화 환율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은 재발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은 금리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크다.

미국 금리인하 속도 또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경제의 호황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은 신산업 기술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정부가 자국 내 제조업 생산을 지원하면서 내수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비록 월가는 자신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경기 침체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큰 폭의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망기관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높아지고 경기도 호황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경기호황으로 인한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금리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크다. 이는 최근 미국 재무부 장관을 지낸 하버드 대학교 로렌

스 서머스 교수가 미국 연준의 9월 0.5%포인트 금리인하, 즉 빅컷^{Big Cut}이 잘못됐다고 비판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내수회복 위한 다양한 움직임 필요해

미국 금리인하 속도가 늦춰지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속도 또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행은 앞으로 인플레이션 재발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저금리보다는 중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기준금리를 올해의 3.25%에서 동결하고 만약 인플레이션 재발이 없으면 내년 말까지 2.5~3.25%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도 한국은행 금리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주택가격은 건축단가가 높아지면서 오를 가능성이 크다. 레미콘과 철근가격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30% 이상 오르면서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건축단가 상승으로 재건축이 어려워지면서 서울 도심주택 공급도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을 늘리려고 하지만 신도시를 만들수록 직장 이 있는 서울로의 교통난이 심해지고 서울 주택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은 오르게 된다. 필수재인 주택가격 상승은 가계부채를 늘려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속도를 늦춘다.

이러한 내수 침체의 원인을 보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속도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소폭의 금리인하만으로 내수부양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 할 수 있다.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선진국도 내수회복을 위해 타 산업과 연관효과가 크고 비숙련노동자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건설경기를 활용한다. 물론 이번 경우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건설경기 부양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 신도시에 주택공급을 늘려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선행해서 직장이 있는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터널과 교량, 도로 등을 확충하고 지하철과 지상철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택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도 있다. 소폭의 금리인하만으로 내수를 부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작년 재정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였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동안의 고금리 정책 후 유증으로 내수가 침체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그 이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수입을 확대해 농산물 가격과 외식물가,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물가가 낮아져 실질소득이 높아지면 소비여력이 생겨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유통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경제를 되살리고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앞으로 20년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때 내수도 되살아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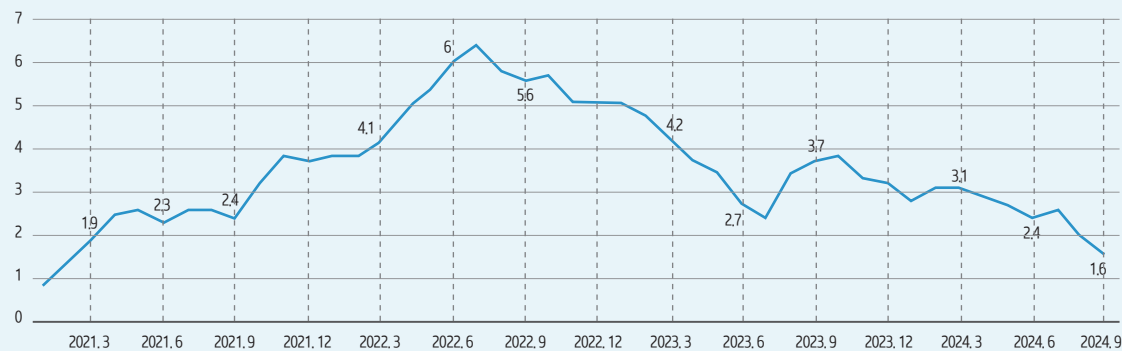
올바른 정책으로 내수회복 앞장서야

한국경제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주력산업의 중국 이전으로 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되며 수출경쟁력 약화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일본과 같이 장기침체의 가능성도 전망된다. 여기에 신산업의 등장으로 산업구조는 급변하고 있으며, 세계는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추세다. 기존의 산업구조로는 성장동력과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없다. 지금은 비록 경상수지가 흑자로 경제가 안정되고 있는 것 같지만 반도체 수출을 제외하면 흑자 폭이 급격히 줄게 된다. 또한 불황형 흑자여서 수출증가보다 수입감소에 의해 흑자가 늘어나고 있다. 수출경쟁력 약화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는 환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본유출로 외환위기의 위험에 한국경제를 노출시킨다.

한국경제가 내수 침체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단기적으로는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신산업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일자리가 늘어 내수가 살아날 수 있으며 수출경쟁력을 높여 성장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 지금은 내수회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당국의 올바른 정책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한국의 인플레이션 추이 (2021.1~2024.9)

(단위 :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노영일 주식회사 예건 대표 자연과 디자인 기술의 접목으로 공간의 가치를 높인다

창립 35주년을 목전에 둔 예건은 대한민국 조경산업계의 주요 업체 중 하나다. 다양한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에서 환경친화적이고 독보적인 조경시설로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해 온 예건의 노영일 대표를 만나 보았다.



창업

1990년 11월



본사

경기도 파주시
신촌3로 1



인원

52명



주요사업

제조·건설·무역·디자인 설계



2023년 매출액

130억 원



2024년 매출 목표

200억 원

대한민국 조경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다

예건은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낯선 기업이다. 그러나 공원시설이나 조경 분야에 몸담고 있는 인물이라면 “아하, 그곳!” 이란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높은 인지도와 명성을 자랑하는 곳이다. “저희 회사는 자연친화적인 시스템과 디자인 기술을 접목한 독자적 방식의 벤치·퍼걸러 庭園식물을 올리기 위해 설치한 시설. 놀이시설 등 다양한 조경시설물을 개발해 전국 곳곳의 공원, 광장, 아파트, 기업, 놀이공원 등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에 밝은 사업가라기보다는 반듯한 교수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노영일 대표가 예건을 설명한다.

그가 조경 사업을 하게 된 데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이 바로 그것이었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개최될 즈음 올림픽공원 조성 사업, 롯데월드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를 위해 미국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도쿄 디즈니랜드 등을 둘러보면서 세계적인 어뮤즈먼트 사업을 직접 접하게 됐지요. 당시 쌓았던 경험은 이 분야 사업에 대해 저를 각성시켰고 우리나라에도 사회적·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 공원은 콘크리트로 만든 편의시설에 나무와 꽃을 심어 놓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이었다. 노영일



대표는 선진국의 놀이공원과 테마파크를 둘러보면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고, 그곳의 제품들을 뜯어보고 벤치마킹하면서 그 메커니즘을 이해했다. 이 산업을 잘 접목해서 사업화를 시켜봐야겠다고 마음먹은 그가 마침내 실천에 옮긴 것이 1990년도 일이었고, 예건은 그렇게 탄생했다. 당시 조경과 관련된 전문기업이 거의 없다시피했던 초기 시절, 예건은 꿈돌이동산과 한솔그룹 등 대형 공사를 수주하면서 빠르게 성장해갔다. 대한민국 조경 분야에 디자인시설물을 접목하는 선구자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다.

제품이 자연보다 돋보여서는 안 돼

노영일 대표는 선진국의 제품을 연구하면서 지금껏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소재를 접목해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 보이겠다는 자신감과 목표를 갖게 됐다. 업계 최초로 기업부설 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한 것도 남과는 다른, 더 높은 가치를 갖는 제품을 연구·개발하겠다는 의지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경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그중 하나가 이용자와 일반 시민들의 니즈가 생겨나고 표현의 자유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대표 개인이 좌지우지할 게 아니라 전문인력들이 모여 트렌드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연구하며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롯데그룹의故 신격호 회장의 “건물에 창문을 만들지 말라, 쇼핑을 위해 시간을 잊고 뛰고 즐기게 하라”, 한솔그룹故 이인희 고문의 “공원 안의 공장을 만들어라”라는 말은 노영일 대표가 지금도 마음에 품고 있는 경영철학이다. 디자인연구소를 통해 품질과 디자인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예건의 성과는 눈부셨다. 퍼걸러는 단체표준 최초 획득에 성공했고, 옥외용 벤치는 KS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 예건의 야외가구 시리즈인 큐보시리즈와 스퀘어벤치 등은 굿디자인어워드 선정, 충남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2014·2016·2019·2021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2014·2017·2019·2021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 2020 세종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을 받으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노영일 대표는 예건을 운영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조경·공원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 공간에 설치되기 때문에 내구력이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요. 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평균적인 스케일을 가져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설치물이 자연보다, 살아있는 나무보다 더 예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보다 근사한 게 아니라 자연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같은 노영일 대표의 철학은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평생 고객’을 만들었다. 이는 그의 가치관에 동의하고 지원하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굳건한 신뢰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노영일 대표의 이러한 남다른 사고^{思考}는 ‘문화경영’이라는 독특한 경영 시스템을 탄생시켰다. 단순한 시설물 제조에서 벗어나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지향하고자 하는 그는 저명한 일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 도시·건축·조경계의 세계적 거장인 비니마스, 사사키 요우지, 유현민·김영민 교수 초청 특별강연 등을 열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젊은 조경가와 관련 학과 학생들에 대한 미래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전시는 물론 지자체 전시회에 부지런히 나가 배우고 익히며 고객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반영하는 것

도 제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지금껏 예건이 이루어놓은 업적은 혁신적이고 아름다우며 친환경적이다. 친환경 어린이 놀이시설물 아이붐 IBOOM, 토털 가드닝 솔루션 푸르너스 PRUNUS, 빗물저장활용 솔루션, 반려동물 테마파크 왈로 WAALO 등 패밀리 브랜드를 비롯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서울시청 앞 광장 앞의 쿨링시스템은 집회, 오가는 차량, 바람의 방향까지 철저히 분석하고 계산해서 만들었다. 라오스에 희망어린이놀이터 설치 기부, 신안군 섬마을에 빗물저장시설 설치, 몽골 서울숲 조성 프로젝트 등 국내외를 넘나드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그 어떤 기업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노영일 대표는 혁신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원칙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 인프라 파악은 물론 가격부터 AS에 대한 문제까지 전부 만반의 준비를 한 채 도전한다. 설부른 융합에 대한 경계도 확실하다.

“한 우물을 파면서 전문성을 키우고 융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을 접목해요. 기존 사업을 팽개치고 융합만을 앞세우면 조직이 무너지거든요. 저는 원천기술을 찾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핵심이니까요.”

대한민국 공원 웬만한 곳에 예건의 제품들이 설치돼있는 이유가 이야기를 나눌수록 선명해진다.

파주 산업단지에 들어서 있는 예건의 사옥은 지극히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이다. 펜스를 세우지 않아 개방감이 느껴지고 외장재는 모두 친환경 점토 벽돌이다. 건물이 동쪽을 등지고 서쪽을 바라보게 축을 살짝 돌린 것도 해가지는 서쪽을 바라보며 새롭게 도래하는 미래를 맞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마디로 노영일 대표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이 전부 들어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수출이 소강상태에 있지만 일본·싱가포르·중동·유럽 등지로 수출길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History

- 1990 • 력기종합금속창업
- 1993 • 예건산업(주)법인설립
- 1998 • 신축공장설립승인
- 1999 • 품질경영체제인증취득
- 2003 • 우수발명진흥공로산업포장수훈(정부표창)
- 2007 • (주)예건 C.I.선포
• 예건 디자인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인정
- 2010 • 안도다다오초청특별강연회
- 2011 • 제16회 경기우수중소기업기술혁신부분대상
- 2014 • (주)예건 사옥이전
- 2016 • 서울정원박람회유공자서울시장표창
• 제51회 발명의 날 석탑산업훈장수훈
- 2017 • 대한민국 혁신경영인 품질부문 대상수상
- 2023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고용노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 **주요 제품**
고강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트레이 '세이프 트레이'
- **시장 규모**
22조 원(해외), 7,000억 원(국내)
- **홈페이지**
www.innoplatic.co.kr

(주)이노플라텍, 배형성 대표

고강도 조립식 플라스틱 케이블 트레이

이노플라텍은 국내 유일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이용한 조립식 케이블 트레이를 개발·생산·공급하는 업체다. 기존의 전기, 제어, 통신 등의 공사에서 사용되는 철제 케이블 트레이를 대신하는 고강도 플라스틱 소재는 '보다 가볍고, 보다 빠르며, 보다 안전함'을 목표로 하는 이노플라텍 기술력의 산물이다.

기존의 전기, 제어, 통신 등의 공사에서는 케이블을 배선할 때 이를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금속 소재의 지지대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는 높은 중량으로 인한 운반·설치의 위험성과 시공의 어려움은 물론 소재 특성상 부식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에 이노플라텍은 케이블 트레이에서 요구되는 강도 **정하중**를 만족하면서 운반·설치 시 작업자의 편의성을 높여 설치시간 단축이 가능한 제품 구조를 설계했으며 고강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세이프 트레이'를 개발했다.

"철제를 대신하기 위해 70% 감량된 무게로 운반과 설치 시 안전사고 예방과 시간 단축에 따른 시공비용 절감은 물론 부식에 강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등 여러 기능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소재로 전기 누설에 따른 감전 및 어스로 인한 화재 발생을 차단합니다."

오랫동안 자동차부품 및 건설기계 제조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배형성 대표는 철제 케이블 트레이의 부식 문제로 인한 문제 해결을 요청받게 된다. 이에 본격적인 제품개발을 시작으로 창업까지 하게 됐다.

현재 이노플라텍은 국내 유일 특허 기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의 케이블 트레이 '세이프 트레이'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기존 철제 제품이 가진 여러 단점을 보완한 기술력에 힘입어 조달청으로부터 '혁신 제품'으로 지정받았다. 또한 2023년에는 이러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포스코기술투자로부터 10억 원의 투자유치 및 TIPS 프로그램 기업에 선정돼 신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건설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사고에 대한 강화된 예방조치와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사의 세이프 트레이는 안전사고 예방과 비용 절감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공공기관과 민수 시장의 점유를 바탕으로 국내외 판로 확대에 따른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제품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는 이노플라텍. 향후 전기, 통신, 공사, 기자재 분야에서 차별화 되는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를 응원한다.

현재 임플란트, 틀니, 교정장치, 라미네이트 등의 보철물 치료는 '환자-치과-치과기공소-치과-환자'를 거치는 복잡한 치료 체계를 지닌다. 이에 에코앤리치는 환자 맞춤형 치과 보철물을 위한 AI 기반 3D 디자인 솔루션 리얼티스 **REALTEETH**를 제공한다. ISO 규격에 맞춘 치과 보철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작해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기존 수작업 방식의 불량률을 줄이고, 제작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리얼티스는 자동화된 품질 검증 시스템을 통해 최종 보철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환자 맞춤형 치료를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에코앤리치는 스마트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협력 병원 및 치과기공소의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품질 검증 기술을 적용, 데이터를 정제하고 이를 AI 딥러닝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자동 생성된 3D 디자인의 정확도와 기능성을 크게 향상해 치료 정밀도를 개선한다. 이는 치과 보철물의 설계와 제작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기술로 리얼티스 솔루션을 통해 불량률을 1% 이내로 낮추고, 제작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에코앤리치는 전진훈 대표의 경영철학에 따라 기존의 관료제를 탈피해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글로벌 치과 환자들의 구강 건강 회복과 디지털 치과 산업의 표준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우수 벤처기업 선정, KDB NextONE 9기와 IBK 창공 구로 12기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8건의 특허 등록 및 출원과 국제 상표 출원(싱가포르, 미국, 중국) 등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에코앤리치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기업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디지털 치의학 기술 혁신을 통해 더 많은 환자가 시간과 비용의 부담 없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며, 환자들이 웃음을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인류의 구강 건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에코앤리치가 혁신적이고 인간적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디지털 덴티스트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주)에코앤리치, 전진훈 대표

AI 기반 치과 보철물 3D 디자인 솔루션

에코앤리치는 AI 자동화 시스템과 3D 품질 검증 기술을 통해 환자 맞춤형 치과 보철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환자들 이 고품질의 보철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글로벌 확장을 통해 디지털 덴티스트리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주요 기술**
AI 무인 자동화, 3D 디자인, 치과 보철물 불량률 검증 기술
- **주요 제품**
AI 기반 3D 디자인 솔루션(SW) 리얼티스(REALTEETH)
- **시장 규모**
204조 원(해외), 2조 4,000억 원(국내)



- 주요 기술
GOST (유산균 세포표면 항원발현) 원천기술
- 주요 제품
차세대 능동면역치료제
- 홈페이지
www.i-fnt.com

주식회사 퓨처엔텍, 김광 대표

차세대 능동면역치료 플랫폼

퓨처엔텍은 자가단백질에 대한 능동면역을 유도할 수 있는 'GOST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질병에 대한 인체 및 동물용 차세대 능동면역치료제를 개발하는 미래혁신 바이오벤처기업이다. GOST원천기술은 단일클론항체 치료제의 비싼 치료비용 및 부작용 등의 단점을 해결하는 범용기술로 인체 및 동물용 능동면역치료제 신약 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혁신적인 기술로 '인류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목표 아래 창사 7년을 맞이한 퓨처엔텍은 차세대 면역치료 플랫폼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는 다양한 질환에 활용할 수 있는 치료 및 예방용 면역치료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는 인체-동물용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체용 능동면역치료제에 대한 기술사업과 동시에 육류공급 불균형이라는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이오스타틴을 표적으로 산업동물 우량화 면역제제'도 국내 승인을 준비 중입니다."

유사한 기술로 미국 Advaxis사와 Aduro사의 *Listeria monocytogenes* LADD기술이 있다. 하지만 안전성 문제로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기술과 달리 퓨처엔텍은 항원전달체로 병원성 세균이 아닌 안전한 유산균을 이용하며, 특히 유산균 세포표면에 항원단백질을 발현했다. 이로써 후천면역반응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면역관용경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GMP 시설에서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공정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또한 인체용 의약품 임상연구를 위한 안정적 자금 확보차원으로 산업 동물용 우량화 제제를 개발 완료하고 현재 품목허가를 준비 중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출신인 김광 대표는 균체표면 발현기술의 확장성과 면역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료 연구원과 함께 퓨처엔텍을 공동창업했다. 모든 스타트업이 그렇듯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첫걸음 과제와 이를 통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인증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고 이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벤처 인큐베이션을 종료하고 대전 테크노밸리로 회사를 독립시키면서 핵심 인력을 보충했다.

"퓨처엔텍에서 개발하고 있는 '능동면역유도형 자가면역 치료제 기술'은 수동면역기술인 '단일클론항체 치료제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혁신기술입니다." 희귀질환을 앓는 환자와 치료제가 없어 고통받는 환자, 가난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면역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쉼 없이 달리고 있다는 김광 대표. 인류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퓨처엔텍의 혁신을 응원한다.

플레이태그는 '세상 모든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겠다'는 당찬 포부 아래 행동 분석 서비스 '스토리라인'을 운영하는 AI 기술 스타트업이다.

"영유아 교육기관의 선생님과 학부모를 위한 영유아 행동분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인적 관찰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는 AI 기반의 솔루션은 교실 내 설치된 플레이렌즈를 통해 아이들 개개인을 객관성 있게 관찰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초 단위로 측정되며 영유아별로 분석되는 데이터를 통해 아이의 신체 활동량, 친구와의 상호작용 활동, 놀이 선호도 등의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선생님들은 돌봄과 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보호자도 아이의 원 생활을 이해해 기관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머신러닝에 기반한 기존의 비디오분석은 노동집약적이고 많은 리소스를 요구합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 인식 등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만 사용되고 있죠. 플레이태그는 사람의 행동을 사람처럼 이해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듭니다. 이를 위해 방대한 양의 3차원 데이터를 실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수집하고 이를 통해 강력하고 일반화가 가능한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리라인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 3차원 복원 기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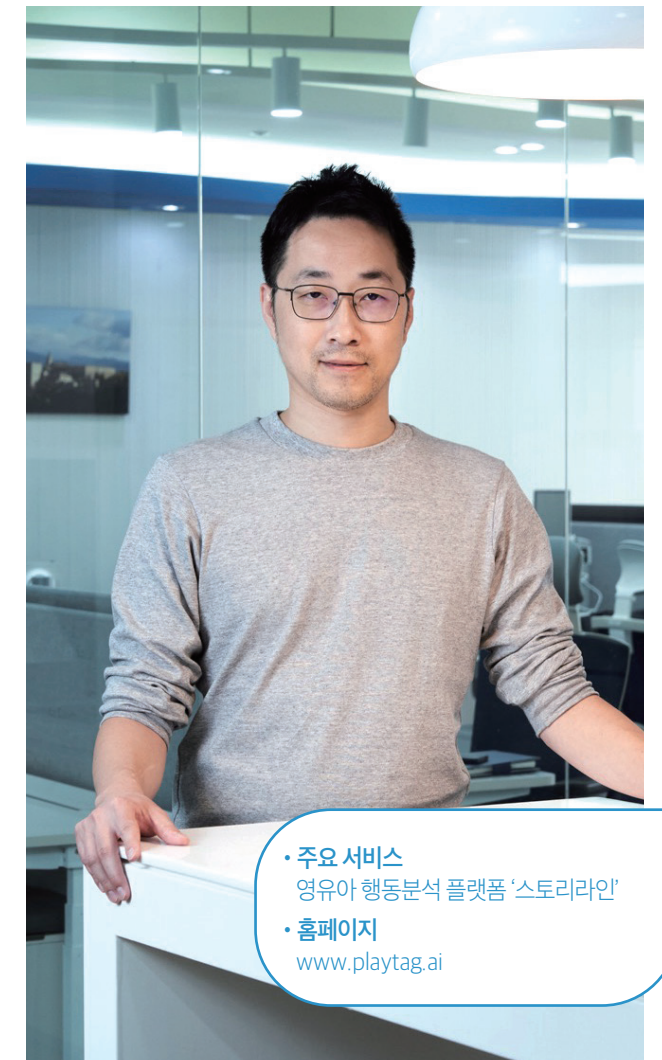
15년간 컴퓨터비전 학계에 몸담았던 박현수 대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임팩트가 있는 사업을 하고자 창업을 결심했다. '새로운 시장의 개척, 새로운 제품,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라는 세 가지 챌린지를 새기며 세상을 조금 더 밝게 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스토리라인은 2024년 3월, 정식 론칭을 시작으로 100여 개 교실에서 시범서비스를 진행했다. 이후 2024년 9월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 2024년 10월 현재 약 150개의 교실에서 이용 중이며 2025년 3월 까지 약 400 교실에서 서비스될 예정이다. 또한 삼성물산, 서울대병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협력을 통한 시니어 사업 진출도 목전에 있다. 플레이태그의 목표는 행동 분석 파운데이션 모델의 일반화와 사업화다. 이는 영유아, 시니어를 넘어 다양한 행동 관련 산업군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주)플레이태그, 박현수 대표

행동 분석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스토리라인'

플레이태그는 행동 분석 파운데이션 모델 behavior foundation model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이다. 대표 서비스로 영유아 행동 분석 솔루션 '스토리라인'이 있으며 영유아·시니어를 시작으로 정부·지자체·기업·학계 등과 협력해 다양한 시장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 주요 서비스
영유아 행동분석 플랫폼 '스토리라인'
- 홈페이지
www.playtag.ai

IBK기업은행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CEO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
IBK기업은행 | 2024.09.27(금) · 광주상공회의소



IBK가 만난 이달의 기업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지난 9월 27일 호남 지역 중소기업 대표 22명을 초청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취임 이후 안산, 창원, 천안, 울산, 인천, 수원 등에 이어 개최된 일곱 번째 간담회로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호남 지역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현장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호남 소재 중소기업 대표 22명을 초청해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9월 27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호남 소재 중소기업 대표들이 자리해 금융비용 부담 및 인력난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사항과 기술력 우수기업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행장은 “오랜 기간 전통 제조업을 영위하며 경제 발전을 주도해 온 기업부터 미래를 이끌어갈 창업기업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금융·비금융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지원과 혁신·창업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김 행장은 광주광역시 소재 영업점을 찾아 중



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올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금융지원방안’과 경기부진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위한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재도약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참여기업

(주)한국메이드

조선업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다

한국 조선업이 오랜 침체기를 딛고 살아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조선업의 상승세는 긴 불황에도 도전과 혁신을 이어온 국내 기업 덕분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목포에 소재한 대한민국 강소 조선소 한국메이드다.

한국메이드는 1996년 창립한 이후 전통적인 조선업의 틀을 넘어서며 지역사회의 믿음직한 동반자로 자리 잡아 왔다. 산업의 불황과 도전을 마주하면서도 언제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그 덕분에 선박 부품 제조에서 선박 건조, 선박 수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최초 전기추진선박을 건조하며 친환경 기술의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중이다.

친환경 선박 기술, 후대를 위한 아름다운 약속

한국메이드의 주요 사업은 ▲선박 구성품 제작 ▲선박 건조 ▲선박 수리 등으로 오랜 협력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박 블록을 제작해 왔으며, 고품질의 블록 제작을 통해 주요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쌓았다. 2018년에는 본격적으로 선박 건조 사업에 뛰어들어 조선업이 불황을 겪는 속에서도 8척의 선박을 직접 건조하는 등 기술력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한국메이드는 친환경 선박 기술에 대한 열정도 남다르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친환경 대체연료 해상 테스트베드’ 선박은 한국메이드의 친환경 기술력을 집약한 프로젝트로,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선박 연료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공기저항 감소 장치 개발을 통해 조선업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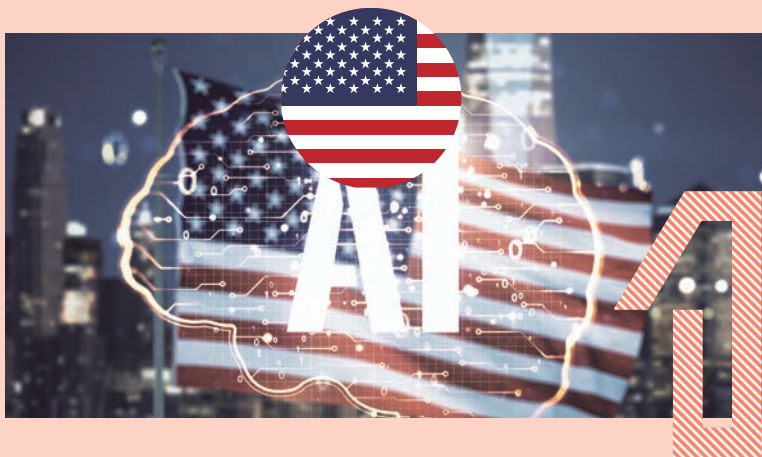
비전을 향한 끝없는 도전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다각화된 전략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 온 한국메이드는 조선 기자재 산업으로의 확장을 목표로 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친환경 선박 육·해상 연구와 실증을 위해 목포시에 새로운 연구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존 조선업을 넘어 조선 기자재 산업으로 진출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이익 극대화보다 모두의 행복을 우선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는 최중근 대표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메이드는 지역과의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며, 조선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Check Point

전 세계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이슈 중 눈여겨볼 뉴스를 알아본다.



美, 국가안보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방향 설정

미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 세계 인공지능^{AI} 개발을 선도하고, 중국 등 경쟁국의 방해로 받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AI 관련 정부 지침을 공개했다. 지난 10월 23일(현지 시각) 미국 백악관은 AI 관련 국가안보각서^{NSM}를 발표했다. 이번 NSM에는 ▲안전하고 보안이 확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을 세계에서 이끌어야 하고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춘 강력한 AI를 사용해야 하며 ▲안전한 AI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국제 AI 거버넌스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AI에 사용되는 반도체 공급망의 보안과 다양성을 개선하고, AI 개발자들이 경쟁국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라는 지침도 포함됐다. 이는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춘 최첨단 AI 체계를 이용해야 한다”며 “우리는 기관들이 가장 강력한 AI 체계에 대한 접근을 확보해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실된 북한군 러시아 파병... 국제 갈등 고조



2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북한군의 우크라이나-러시아전 파병이 실제로 드러나면서 이번 파병을 놓고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000여 명에 달하며 오는 12월까지 총 1만여 명이 파병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외교안보 매체 포린폴리시는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군을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한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해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 데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전쟁 파병이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유럽연합^{EU} 또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세계 평화·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독단적 적대행위”라고 비판했다.

2.5%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2.5%, 2.2%로 전망했다. 이번 IMF 전망치는 우리 정부의 2.6%보다는 낮고 한국은행의 2.4%보다는 높은 수치다.

2,750 달러



지난 10월 23일 국제 금값은 전날보다 온스당 1달러 높은 2,750.9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금값이 4분기에 온스당 평균 2,800달러에 이르고 내년 1분기에는 평균 2,900달러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1,200억 건



중국 우정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9월 중국 택배 발전 지수는 442.5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 또한 올해 1~3분기 중국의 택배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택배 업무량은 1,200억 건을 넘었다.



기후변화로 사막에 비가... “사하라 남부 계절적 폭우 심해져”

기후변화로 인해 사하라사막의 남쪽 주변인 아프리카 사헬 지대의 계절적 폭우가 심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국적 기후연구단체인 세계기상특성^{WWA}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올해 사헬 지대의 니제르와 차드호수 유역에서 계절적 폭우가 5~20% 더 심해졌다”고 밝혔다. 사헬 지대는 아프리카 사하라사막의 남쪽 가장 자리를 길게 띠 모양으로 가로지르는 곳이다. 북부 세네갈, 남부 모리타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남부 니제르, 북동부 나이지리아, 차드와 수단 등이 포함된다. WWA는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기온이 섭씨 2도 정도 더 오르면 이런 폭우가 매년 내릴 수 있다”며 “아프리카는 적은 탄소를 배출하지만 기상 이변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의 조기 경보 체계와 댐 유지·보수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콩,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벌금 최대 1,700만 원



4

지난 10월 22일, 홍콩이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요식업계와 소매업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과 호텔 등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 세면도구, 물병 등을 팔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은 2,000홍콩달러(약 35만 원)에서 최대 10만 홍콩달러(약 1,760만 원)에 달한다. 홍콩 당국은 22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열흘 내 시정을 명령했다.

노르웨이, ‘15세 이상만 SNS 이용’ 추진



5

노르웨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올리기로 했다. 요나스 가르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SNS 이용 제한 연령 상향 방침을 공개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6월 보호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호주도 연내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해 조만간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4전5기 성공’ 日 차기 총리에 이시바 시게루 선출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총리가 당선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 구상과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 가고 있는 이시바의 경제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도쿄공업대학,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등에서 일본경제를 연구했으며 현재
한국외대 한일정책연구센터장 및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난 9월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의 당선을 예측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특히 유일하게 남아 있던 파벌인 아소파가 선거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후보를 지지하자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다카이치의 당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평소 적극재정과 금리인하를 주장하던 다카이치의 경제정책을 선반영해 다카이치 트레이드(엔화 약세, 주가 급등)가 발생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시바가 당선되자 시장은 이시바 쇼크(엔화 강

세, 주가 급락)로 혼란스러웠다.

‘아베노믹스 탈피’와 ‘기시다노믹스 계승’으로 완성될 이시바노믹스

신임 이시바 총리는 아베 전 총리 시절부터 유일하게 내각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미스터 쓴소리’였다. 사교성은 부족하지만 똑심 있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떠올렸다. 언제나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감 1위를 차지했지만 비주류 정치인으로서는 현실 정치의 벽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선

거는 ‘소거법 투표’의 성격이 강했다. 3강으로 평가된 후보 중에서 공부 부족, 경험 부족을 드러낸 고이즈미(小泉)와 강경보수 이미지로 거부감이 강한 다카이치를 제외하니 그나마 뽑을 만한 후보가 이시바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시바 총리는 취약한 당내 기반 위에서 비주류 의원들로 구성된 내각과 함께 신정부의 닳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군사·안보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오랫동안 군사·안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며, 상대적으로 경제정책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몇 가지 이슈들이 부각됐다. 우선 아베노믹스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점이다. 이시바는 아베노믹스가 주주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공과를 평가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서민들이 고물가를 겪는 것은 10년 이상 지속된 금융완화 때문이며 하루빨리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멈추고 재정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 ‘금융소득과세를 강화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등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시바 총리의 주장은 한마디로 아베노믹스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이었다. 또한 이시바 총리는 전임 기시다 총리의 경제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시다의 ‘새로운 자본주의’는 이시바와 마찬가지로 아베노믹스를 비판하면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임금인상과 ‘자산운용입국(立国)’을 내세웠다. 즉 아베노믹스에서 탈피해서 기시다노믹스를 계승하고, 여기에 자신만의 색깔이 더해진 ‘지방창생 2.0’을 얹은 형태로 이시바노믹스의 큰 틀이 구성됐다.

뒷걸음질 치는 이시바노믹스
그런데 취임 이후 이시바 총리



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먼저 10월 2일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와 면담한 후 “지금은 추가로 금리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해서는 아예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고, 금융소득과제 강화에 대해서는 이미 선거 중에 “전문가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서둘러 논란을 진화했다. 결국에는 20년간 주장해 온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은 ‘아시아판 나토’ 구상도 톤다운에 들어갔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국회의원 시절의 이시바와 총리가 된 지금의 이시바는 큰 차이가 있었고, 사람들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평소의 지론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정치현금 스캔들과 파벌 해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어부지리로 당선된 이시바 총리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

다. 중의원을 해산하고 10월 27일에 서둘러 총선을 실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총선 결과에 따라, 당내 입지가 강화된다면 이시바노믹스를 비롯해 이시바의 색깔이 뚜렷한 정책들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두 번째는 일본 총리의 무게감을 이제야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는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매파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정상화에 동의하는 것이며,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은 이시바 쇼크로 반응했고, 이시바 총리는 자신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감에 대해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를 만난 뒤 발언이 바뀐 배경이다. 생각과 달리 아베노믹스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인정했다. 결국 이시바노믹스는 처음 구상보다 많이 후퇴한 수준에서 완성될 것 같다. 📡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의 근거들

한국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탄생했다. 소설 <채식주의자>로 국내 최초 맨부커상을 받았던 한강이 그 주인공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저력과 한국문학이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이명원

문학평론가 경희대 휴머니티칼리지 교수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비평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경희대 휴머니티칼리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강, 韓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10월 10일, 노벨상 위원회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한강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을 받은 만큼 전 세계가 들썩였다.

노벨 문학상은 특정한 작품에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게 그 영광을 돌린다. 그만큼 특정 작품의 일시적인 성과보다는 작가의 전 생애에 걸친 문학적 역량과 헌신 그리고 인류문명에 대한 예술적 기여를 중시한다. 그런 까닭에 한강의 수상 소식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1993년 등단한 한강은 30



년 이상 활동한 중견작가이지만 지금보다 더 세계 문학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젊은 작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세계문학계에 한강이 주요 작가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채식주의자>로 영국의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받으면서다. 이후 한강은 2019년 아르세비스포 후안 데 산 클레멘테 문학상, 2023년 메디치 외국문학상, 2024년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 등을 연달아 받으며 아시아 문학을 거론할 때 참조할 만한 대표적인 작가로 부상했다. 그러나 한강이 2024년도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문학전문가들은 많지 않았다. 이번 노벨 문학상은 아시아권에서 수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중국의 카프카’로 불리는 찬썬(殘雪)의 수상이 가능성을 높이 졌다. 일본도 무라카미 하루키 수상에 기대를 품고 있었다.

문학을 통한 치유의 목소리

돌이켜 보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자못 타당한 이유가 있다. 먼저 아시아 문학을 구성하는

주요 나라에는 이미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존재한다. 1945년 이전에는 인도 시인 타고르가 수상했고, 1945년 이후에는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자부로, 중국의 모옌이 수상하기도 했다. 사실상 아시아의 주요 국가 가운데 아직까지 노벨 문학상을 한 번도 수상하지 못한 것은 한국인 만큼 한강의 수상에는 상황적 필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차적으로 한강의 작품세계가 탁월함에 기인하지만 2000년대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는 한류붐이 이제는 문학과 같은 ‘본격 문화’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과정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 이미 여러 한국의 작가나 해외의 한국계 작가들이 유수의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전해진 같은 날에 한국계 재미작가인 김주혜가 러시아의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은 것도 그런 까닭이다. 앞으로 이러한 흐름은 단지 문학계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문화 전반에 걸쳐 세계적 위상의 상승이라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역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현재 세계문학계의 지형에서 볼 때 그의 작품이 보여주는 보편적 가치와 문학계의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른바 ‘여성적 글쓰기’의 전면적 대두라는 세계문학의 변화 양상이다. 1945년 이전까지 세계문학계는 남성 중심의 근대문학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새로운 전후 체제가 형성되면서 세계문학계에는 여성작가들이 대거 등장해 여성들의 고유한 정념과 경험과 세계관을 드러내는 작품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한강의 소설은 전통적인 남성작가들이 보여주는 거대한 역사나 사건 중심에 집중해 가는 양상과는 다른 서사적 특성을 지녔다. 특히 그녀의 소설문체를

일컬어 ‘시적 문체’라고 평가하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시적 문체를 통해 서술되거나 묘사되는 등장인물의 내면은 모호하기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다채로운 고통과 욕망에 대한 모순적인 고백들로 발생되면서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현실을 낯설게 인식하게 만드는 감각적 충격과 두려운 각성의 계기를 제시한다. 가령 <채식주의자>는 육성으로 표상되는 남성적 욕망에 대한 비타협적 거부를 기반으로 식물화돼 가는 여성의 극한적 욕망을 서술하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접하게 되는 인식론적·감각적 혼란은 일종의 미학적 충격효과를 초래한다.

이번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에서 거론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다”라거나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는 인간을 표현한다”는 평가는 물론 광주 5·18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나 제주 4·3을 대상으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겠지만, 이 평가의 문학적 의미에 대해 새롭게 음미해 보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이 두 소설의 특징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제의 사건과 비극을 다루지만 그것을 단순히 폭력에 의한 시민적 희생이라는 구도로 축소하지 않는다. 죽은 소년의 독백으로 진행되는 <소년이 온다>의 서술방식이나 망자(亡者)의 고통과 점신하면서 그 고통을 스스로의 것으로 반복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서사를 통해 한강이 강력하게 환기시키고 있는 것은 강인한 인간의 생명력과 소망적 정념의 생기와 활기들이다. 그것은 어떠한 개인적·역사적 폭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충만한 삶에 대한 희망과 내면적 일어섬의 끈질긴 의지를 독자들에게 역설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노벨 문학상 수상을 가능케 한 한강 소설의 세계문학적 보편성일 것이다. 

여집합에서 답을 찾다

국내에서 건조하지 않는 벌크선 교체 발주 물량이 중국의 도크를 채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원가 경쟁력과 증설에서 비웃던 중국의 수주 우세 양상이 둔화되며 한국이 컨테이너와 탱커를 수주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오지훈

IBK투자증권 연구위원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조선·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2024년 한국의 컨테이너, 탱커 수주 부진

올해 들어 한국의 컨테이너와 탱커 수주가 유독 부진하다. 2024년 8,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한 개) 이상급 컨테이너선 수주 점유율은 한국 9%에 중국 94%로, 608척 중 한국은 단 18척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탱커 [원유 운반선](#)에서도 수주 양상은 유사하다. 2022~2024년 발주된 136척의 VLCC [대형 원유 운반선](#) 중 한국은 단 26척을 수주했다. 중국이 원가 경쟁력과 증설에 힘입은 여유로운 슬롯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 중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원가 경쟁력은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중국산 후판 가격은 국내산 대비 50%가량 저렴한 상황이고, 인건비 또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1/2~1/3의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이 2010~2018년 9년간 수령한 정부 보조금은 약 173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비상장

사가 수령한 보조금을 제외한 수치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보조금은 더 큰 금액으로 예상된다.

벌크선 발주 재개로 중국의 증설 부담 완화 전망

벌크선 발주가 재개되면서 중국의 슬롯을 채우고, 한국 조선업이 컨테이너와 탱커를 수주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벌크선을 수익성이 낮아 더 이상 건조하지 않지만 벌크선은 사실 GT [Gross Tonnage, 총톤수](#) 기준 글로벌 선대의 1/3을 차지하는, 가장 비중이 큰 선박이다. 현재 글로벌 조선 건조 물량의 90%를 한·중·일 3개국이 담당하는데 한국은 벌크선을 건조하지 않고 일본은 Capesize [대형 벌크선](#) 기준 연간 20~30척 수준만 인도 가능하다. 중국은 벌크선의 최대 수요국이자 건조국인데, 최근 벌크선 발주가 미비했다. 대형 컨테

이너선의 발주가 증가하며 조선사들이 다른 선종을 수주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벌크선의 노후선 교체 시기가 다가온다. 2030년 기준 선령 20년 이상된 Capesize 선박만 878척이며, 이는 현존하는 Capesize 선대의 40% 수준이다. 중국 주요 조선사의 증설 후 연간 캐파는 300척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을 벌크선 교체 발주로 채울 전망이다. 연간 160척씩 건조한다고 해도 5년 치 물량이다.

노후선 교체 발주, 친환경 규제가 앞당겨

2000년대 호황기 시기에 중국의 물동량 성장으로 인해 발주됐던 선박들이 노후화되고 있다. 이미 선령이 15년 지났고 20년 차를 향해 가는 중이다. 친환경 규제는 노후선 교체 발주 시기를 앞당긴다. 여러 가지 친환경 규제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규제는 IMO의 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다. 다른 규제들과 달리 매년 실제 운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CO₂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또한 CO₂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데, D등급 연속 3년 혹은 E등급 1회 부여 시 시장 계획을 제출하거나 폐선해야 한다. 선박의 평균 생애 주기는 20~30년 수준인데, CII 규제는 2015년 이전 인도된 컨벤셔널 엔진 선박들은 2030년 이전, D/F [Dual Fuel, 이중연료](#) 엔진 선박들은 2040년 이전 교체를 강제한다.

LNGc: 2030년까지 발주 걱정 없다

LNGc는 신규 프로젝트에서 281척, 노후선 교체로 282척이 발주될 것으로 전망된다. LNGc는 다른 선종과 다르게 프로젝트 기반으로 물동량을 추정한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면 LNGc를 운송하기 위한 선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 중인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365척을 위해 잔고의 343척이 이미 발주된 물량이라 가정하고 기본설계의 50%,

제안 중인 프로젝트의 20%가 최종투자결정이 된다고 가정하면 281척의 신규 LNGc가 필요하다. 여기에 노후선 교체 발주까지 더해진다. 280척의 노후 선박이 교체 예정이다. 글로벌 연간 LNGc 인도 가능 척 수는 90척 수준(한국 70척, 중국 20척)인데, 이를 기준으로 6년 치 물량이 쌓여 있다.

컨테이너선: 대형급 교체 발주 마무리, 중형급 교체 발주 시작

대형 컨테이너선 8K TEU 이상의 교체 발주가 마무리되고 450만 TEU 규모의 중형급 교체 발주가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SCFI [상해컨테이너운임지수](#)가 폭등하며 컨테이너 해운사들은 10년 치 현금을 벌었다. 2024년에는 중동 지역 분쟁으로 다시 운임이 폭등하며 컨테이너 해운사들의 발주는 건조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2021~2024년 4년간 8K TEU 이상급 선박이 총 588척 발주됐다. 이제 중형급(3~7.9K) 차례다. 2029년 인도 기준 선령 15년 이상 노후선이 1,494척이다.

탱커: 대형 컨테이너와 배턴 터치

탱커에서는 연간 80척 수준의 VLCC 발주가 전망된다. 대형 컨테이너의 교체 발주가 마무리되며 조선사 캐파 부족이 완화되고, 탱커의 평균 선령도 벌크와 유사하게 노후화 중이며, VLCC 잔고선대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발주가 지연 중이기 때문이다.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은 지속될 전망이다. 2024년 3분기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달러/원 환율 하락 효과 등으로 일부 이익 조정은 불가피하나, 2021년 저가수주물량의 매출 비중이 감소하고, 선가 상승분이 온전히 매출에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은 지속될 전망이다.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 🌳

암 정밀 타격, 차세대 항암제 ‘ADC’ 바이오 기술

항암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 Drug Conjugate, ADC) 개발 경쟁이 가속되고 있다. 자체 신약 개발은 물론 M&A 및 파트너십 활동도 활발해 지난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투자가 이뤄졌을 정도다. 신약 개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DC 바이오 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정희진

홍익대학교 바이오화학공학과 부교수

홍익대 바이오화학공학과 교수로

중이며, 동경대 박사, 하버드의대

다나파버암센터 연구원 후 현재 질환

진단 및 치료용 기능성 항체 개발중이다.

항체-약물 복합체(Antibody Drug Conjugate, 이하 ADC)는 암 치료에 있어 혁신적인 접근법이다. 특정 암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분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와 암세포를 공격해 사멸시키는 세포독성 약물을 결합해 설계된 항암제이기 때문이다. ADC는 항체의 암세포 특이적 결합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상세포에는 약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암세포에만 작용할 수 있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표적해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며, 암치료의 중요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2년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에서 유방암 ADC치료제 ‘엔허투’가 치료하기 어려운 유방암환자의 사망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임상결과가 발표되면서 차세대 항암제로 이목을 끌고 있다. 글로벌 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 ADC치료제 시장규모는 2022년 58억 1,000만 달러(한화 약 7조 5,495억 원)에서 2026년에는 130억 달러(한화 약 16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될 정도다.

암세포만 공격하는 차세대 항암제

ADC는 항체, 약물, 링커로 구성된다. 항체는 체내의 면역계가 외부로부터 체내에 침입하는 분자(항원)를 적으로 인식해 무력화하는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생성하는 당단백질이다. 항체공학적 방법을 구사해 체내에 존재하는 항체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의 기능으로 개량된 항체를 실험실에서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질환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된다. 예를 들어 유방암 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인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2)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인

항HER2항체(이하 4D5)는 HER2에 결합해 유방암세포를 비활성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4D5항체는 쥐에서 유래한 항체였기 때문에 이를 사람의 체내에 투여했을 경우 외래물질로 인식돼 면역반응이 유발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항체의 항원결합부위(CDR)를 인간항체의 배열로 변화시킨 인간화항체(Humanized Antibody)가 개발됐고, 이는 사람 유방암 세포의 HER2에 강하게 결합함이 확인됐다. 하지만 인간 유방암 세포의 활성을 저해하는 능력은 높지 않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섯 개의 아미노산을 마우스의 배열로 되돌린 항체인 트라스트주맙(Trastuzumab)을 제작해 활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항체의 HER2 결합력이 약 250배 증가했고, 암세포 기능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항체는 1998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허셉틴(Herceptin)이라는 약제로 판매되고 있으며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ADC에서 사용되는 항체는 암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약물이 해당 세포 근처에 위치하도록 해 표적 특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ADC의 두 번째 구성요소인 약물은 세포독성을 갖는 분자에 해당하며, 항체가 표적 세포에 도달하면 세포 내로 유입된 후 특정 위치에서 방출되거나 암세포 표면 근처에 존재하며, 암세포를 공격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저해하고 사멸시킨다. 세 번째 구성요소인 링커(Linker)는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펩타이드 등으로 이황결합, 에스터결합 등의 화학결합이 링커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될 수 있으며, FDA로부터 승인된 대부분의 ADC는 절단성 링커

를 기반으로 한다. 링커는 체내에서의 대사 및 분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체와 약물의 연결을 유지하는 생체 내 안정성이 높아야 하며, ADC가 세포 내에 유입된 후에 특정 환경(예를 들어 절단에 최적화된 pH, 절단에 필요한 효소가 존재할 경우)에서만 절단돼 약물이 항체로부터 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DC가 체내에 투여된 후의 대표적 작용 메커니즘은 표적 결합-내포화-약물 방출의 단계로 진행된다. 항체가 암세포 표면의 특정 항원에 결합하는 과정에서 항체의 특이성 및 결합력이 중요하며, 특히 정상세포에 비특이적으로 결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암세포 표면에 위치한 ADC가 세포 내부로 이입되는 내포화 과정(Endocytosis)에서 ADC는 세포막에 의해 둘러싸여 세포 내에 존재하는 소포체(Vesicle)로 전달된다. 소포체 내에

서 ADC의 링커는 산성 환경 또는 효소 작용에 의해 분해되고, 약물은 소포체에서 방출된다. 방출된 약물은 세포 내에서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거나 세포사멸(Apoptosis)을 유도한다. 이외에도 세포 내에 이입되지 않고, 암세포 표면의 타깃 항원을 매개로 해 암세포와 ADC가 결합돼 있는 상태에서 ADC의 약물이 기능을 나타내는 메커니즘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전 세계 바이오 업계 ADC 개발 주목

2024년 10월 현재 13종의 ADC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이치산쿄우가 공동 개발 중인 다토포타맙 데룩스테칸(Dato-DXd), 머크와 다이이치산쿄우가 공동 개발 중인 파트리투맙 데룩스테칸(HER3-DXd), 애브비가 개발 중인 텔리소투주맙 베도틴(ABBV-399)이 2024~2025년에 승인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100종 이상의 ADC가 임상 개발 단계에 있는 등 ADC와 관련한 연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종래의 화학요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높아 유방암과 비소세포폐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서 그 효능이 부각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임상 결과는 ADC가 앞으로의 암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기술 개발과 위탁 생산 '투트랙'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12월 미국 안센과 17억 달러(약 2조 2,000억 원) 규모의 ADC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잭팟을 터뜨렸다. 피노바이오는 지난해 미국 컨주게이트바이오, 셀트리온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인투셀도 지난해 스위스 ADC테라퓨틱스와 ADC 플랫폼 물질 이전 계약을 맺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SK팜테코 등은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중이다.

차세대 항암제 ADC에 기대 커

ADC의 효능과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새로운 링커 디자인, 약물 전달 시스템, 다중 표적화 기술, 약제 내성 극복 기술 등 ADC의 설계 및 제조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또한 ADC가 결합하는 새로운 암세포 항원 마커 발굴 및 다양한 암 질환에의 적용 등 표적 및 효능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난치성 암에 대한 표적 치료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역관문억제제로 사용되는 항체를 사용해 ADC를 구

성하는 항체가 타깃 인지 뿐만이 아니라 그 항체 자체가 치료제로도 기능할 수 있다. 또한 ADC와 면역관문억제제의 병용 요법으로 인해 암세포의 면역 회피 메커니즘을 극복하고 면역반응을 촉진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DC를 사용한 치료에 있어서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할 경우 체내에서 그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동일한 양을 투여해도 효능이 초기 투여 시에 비해 높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내성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히 해명하고, 새로운 표적 바이오마커 및 상이한 작용 기전을 갖는 약제를 개발하고 사용함으로써 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ADC의 특이성은 기존의 치료법에 비해 높음이 알려져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세포에의 비특이적 결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별로 투여량을 최적화하고, 투여 후의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부작용의 조기 발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ADC는 고가의 약제로, 제조 효율은 유지하되 제조 과정을 최소화하고 간편화해 생산 비용을 줄임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에게 접근 가능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ADC 기술은 그 특이성과 효과로 인해 암 치료에 있어 혁신적인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연구는 많은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것이다. ADC 개발은 앞으로의 암 치료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자병법과 전승 전략

함께 나아가는 힘을 길러라! 상산^{常山}의 솔연^{率然}

녹록치 않은 산업 현장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위기를 만났을 때 함께 헤쳐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이기는 조직이 꼭 갖춰야 할 특징이다. 위기에 강한 조직을 만드는 전략에 대해 <손자병법>의 조언을 들어본다.



박재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동양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인문의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

<손자병법> 10편 <지형^{地形}>과 11편 <구지^{九地}>는 전쟁에서 처한 지형(상황)에 관한 이야기다.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을 땅^{死地}, 사지^{死地}에 처했을 때도 있고, 함정^{陷地}, 함지에 빠질 때도 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곳^{亡地}, 망지에 있거나 무너지는 상황^{崩地}, 붕지를 만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지형>과 <구지> 편에서 제시했다. 기업을 운영하며 위기를 만나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 번쯤은 위기의 상황^地에 처해 보았다고 한다. 자금·인력·기술의 위기는 늘 겪는 상황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기는 회사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힘들었다고 한다. 그때마다 위기를 겪어 낸 힘은 결국 전 직원이 똘똘 뭉친 힘이었다고 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장을 믿고 서로를 끝까지 지켜 주며 버텨 낸 힘이 결국 위기 극복의 원천이었다는 것이다.

地形

상산^{常山}의 솔연^{率然}

<손자병법>에서는 이렇게 서로를 끝까지 지켜 주는 군대를 솔연^{率然}이란 뱀으로 비유하고 있다. ‘상산^{常山}에 사는 솔연^{率然}은 영원히 죽지 않는 뱀이다. 누군가 뱀의 머리를 때리면 꼬리가 달려들어 구해 주고, 꼬리를 공격하면 머리가 달려들어 구해 준다. 뱀의 몸통을 때리면 이번에는 머리와 꼬리가 동시에 달려들어 구해 주니 이것이 솔연이 영원히 죽지 않는 이유다.’

꿈과 비전을 공유하고, 위기에서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켜 주는 조직을 만드는 일은 장군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역량이다. 조직의 리더는 모든 구성원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갈 수 있는 형세^{形勢}를 만들어야 한다. 상산의 솔연 같은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같은 배를 타고 운명을 같이하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공유하게 해야 한다. 오월

동주^{吳越同舟}의 상황을 만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함께 그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다. ‘오나라 사람^{吳人}과 월나라 사람^{越人}은 서로 미워하는 원수다. 그러나 같은 배^{同舟}, 동주^{同舟}를 타고 강을 건넌다가 폭풍을 만나면 서로를 위해 지켜 주는 것이 마치 오른손과 왼손 같을 것이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쑤저우^{蘇州}와 항저우^{杭州}를 기반으로 한 적국이다. 이렇게 서로 원수지간이라도 같은 배를 타는 순간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된다는 것이다. 이유는 배가 침몰하면 모두 죽는다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이다.

분주파부^{焚舟破釜}

위기를 만났을 때의 절박감은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다. 배가 침몰하면 모두 죽는다는 절박감이 병사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듯이, 이번 전쟁에서 지면 돌아갈 배도 밥을 해 먹을 술도 없다는 절박감이 있다면 조직은 강한 결속력을 만들어 낸다. 장군은 결전의 날이 되면 절박한 상황을 만들어 병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장군은 결전의 날이 다가오면 지

붕에 올라가서 사다리를 치워 지붕에서 내려갈 방법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적지에 들어가 전투가 시작되면 타고 돌아갈 배를 불태우고 밥해 먹을 술은 깨트려야 한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전장에서 생존할 것이며,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다.’ 초나라 항우는 전쟁에 앞서 밥술을 깨고 배를 침몰시켜 이번 전쟁에서 패배하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감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 국가대표 축구팀의 전력은 선수 개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절박감이 승리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면 군대에 갈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있을 때 목숨 걸고 경기에 임할 수 있다. 이기든 지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경기에 임한 선수들이 승리할 확률은 적다. 뜨거운 사막 중동에서, 앞도 제대로 안 보이는 독일 탄광에서 한국 근로자들이 목숨 걸고 싸운 결과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절박감은 대한민국을 키워 낸 가장 큰 동력이었다.

九地

국보^{國寶}

‘국가의 보배’를 국보^{國寶}라 한다. 국보는 값비싼 골동품이나 문화재가 아니다. <손자병법>에서 국보는 장군이다. 자신의安危를 돌보지 않고 오로지 전쟁의 승리와 조국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군이 국가의 보배다. 인사권자가 칭찬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돌격하지 않고, 주위의 비난 때문에 후퇴를 주저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병사와 백성을 구하고, 나를 믿고 장군으로 임명한 군주와 국가의 보존을 위해 전쟁에 임하는 장군이 국가의 보배다. ‘전쟁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면 군주가 싸우지 말라고 명령해도 싸워야 한다. 전쟁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 군주가 싸우라고 명령해도 싸우지 말아야 한다. 진격을 명령함에 명예를 구하지 않고 후퇴를 명령함에 죄를 피하지 않으니, 이런 장군을 국가의 보배, 국보라고 한다.’ 이 대목을 읽다 보면 항상 가슴이 떨린다. 명예와 처벌에 상관없이 오로지 조직의 국가와 백성의 생존을 위해 군대를 이끄는 장군.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그런 장군이었기 때문이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언제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는 나를 만나는 일이다. 그래야 조직이 결속하고 승리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 한 배를 타고 술연처럼 서로를 목숨 걸고 지켜 주는 조직의 형세, 이것이 <손자병법> 지형^{地形}, 구지^{九地} 편의 핵심이다. 

CEO 정기보험, 실익이 있을까?

CEO 정기보험은 기업의 경영자나 주요 인력을 위한 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보험 계약 중에 대표이사 등의 사망이나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으며, 때로는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만기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현금흐름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정기보험과 관련된 비용처리법 그리고 중도해지 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실익분석을 알아본다.

Insurance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현직 세무사로 20년 넘게 개인과 기업 고객에 대한 각종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세무 가이드북> 등 80여 권의 저서가 있다.

CEO 정기보험과 세무상 쟁점

첫째, CEO 정기보험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해당 보험료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퇴직기한을 정하지 않아 퇴직 시점을 알 수 없을 것
- 만기환급금이 0원일 것
- 전가납(만기까지 납부하는 방식) 형태의 계약일 것

둘째,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세법은 이를 법인의 수익으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보험은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으므로, 중도에 해지해 환급금이 발생하는 식으로 설계돼 있다.

셋째, 중도에 해지한 보험금은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이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물론 대표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은 한도가 있으므로 사전에 퇴직금 규정을 정비해 두면 100%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이때 보장성 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때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적용 사례

실무상 CEO 정기보험은 위와 같은 흐름 속에서 업무처리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보험에 가입한 CEO로서는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K 법인은 다음과 같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자료>

- 계약자와 수익자는 K 법인이며, 피보험자는 대표이사임
- 월 보험료: 500만 원
- 보험기간: 75세
-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함

Q1. 만일 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절세 효과는? 단, 세율은 19%를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 1년간: 6,000만 원×19%=1,140만 원
- 10년간: 1,140만 원×10년=1억 1,400만 원

Q2. 만일 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한 상태에서 해지해 5억 원을 수령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얼마나 나올까?

- 법인세(반 절세효과): 5억 원×19%=9,500만 원

Q3. 사례의 경우 10년 후 해지 시 현금흐름의 양상은 어떻게 되는가? 단, 화폐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구분	금액	비고
보험료 유출	△ 6억 원	
+보험료 절세효과(유입)	1억 1,400만 원	보험료×19% 가정
+보험금 입금(유입)	5억 원	
보험금 법인세(유출)	△9,500만 원	보험금×19% 가정
=순현금 유출	△8,100만 원	

Q4. 만일 Q3에서 보험금 입금액을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보험 가입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어떻게 되는가? 단, 퇴직소득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구분	금액	비고
보험료 유출	△ 6억 원	
+보험료 절세효과(유입)	1억 1,400만 원	보험료×19% 가정
+보험금 입금(유입)	5억 원	(퇴직금 사용)
보험금 법인세(유출)	△9,500만 원	보험금×19% 가정
+퇴직금 지급(유입)	9,500만 원	퇴직금×19% 가정
=순현금 유입	1,400만 원	

Q5. 만일 해지환급률이 70%인 경우의 현금흐름 양상은?

구분	금액	비고
보험료 유출	△ 6억 원	
+보험료 절세효과(유입)	1억 1,400만 원	보험료×19% 가정
+보험금 입금(유입)	4억 2,000만 원	6억 원×70%
보험금 법인세(유출)	△8,000만 원	보험금×19% 가정
+퇴직금 지급(유입)	8,000만 원	퇴직금×19% 가정
=순현금 유입	△6,600만 원	

이처럼 법인이 절세효과만을 가지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현금흐름 양상이 다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이러한 분석에서는 중도해지 시 환급률이 얼마나 되는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보험의 가입목적이 퇴직금 지급이라면 대표이사도 가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을 먼저 활용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은 법인에서 불입하면 바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물론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퇴직 후 연금소득으로 저렴하게 소득세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연간 사적연금소득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는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3~5.5%), 1,500만 원 초과 시는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권고사직 관련 노무이슈 살펴보기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시행하는 회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로금도 수억원 대의 금융권과 1~2개월 치 급여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차이가 커 이슈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의할 노무이슈를 알아본다.



장내석
노무법인 예담HR컨설팅
노무사
노동법률 전문가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기업들의
인사평가나 보상설계와
같은 HR시스템에 대해서도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Q. 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인 반면 권고사직은 “나가 줄 수 있나?”라고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OK” 하는 경우를 말한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있는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다. 또한 권고사직은 해고 예고도 적용되지 않아 바로 내일 자 권고사직도 가능하다. 보통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함’이라고 쓰인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반드시 사직서를 써야 하는 건 아니므로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 등으로도 사직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된다.

Q. 회사가 사직서 쓸 때까지 강요하고 괴롭혀서 억지로 써도 권고사직이 되는 건가?

아니다. 강요나 사기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사직서를 내면 그 사직서가 사기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 회사가 수차례 사직할 것을 요청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직 안 하면 책상도 빼고 업무도 다 뺏을 것이고, 손해 배상 소송도 하겠다”라고 말한 정도의 협박이 있어야 한다. 법원에서도 ‘본인이 원해서 사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생각해 했더라도 자발적인 사직동의다’라고 본다.

Q. 경영상 이유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받는 것도 권고사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부할 수 있는 건가?

그렇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도 권고사직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 종종 퇴직 대상을 정해 놓고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고라고 볼 수 있다. 나이 45세 이상, 근속 15년 이상 등 대상 기준만 정해 놓고 자유롭게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Q. 회사 경영이 악화됐다고 권고사직을 해 놓고 바로 동일한 업무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한 걸 알게 됐다면 문제 삼을 수 있나?

그렇다. 다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마치 경영이 악화돼 인원을 줄여야 하는 것처럼 사기를 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직을 했어도 이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돼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진다.

Q.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해고

당했다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일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

통상 사직권유는 상사와의 면담에 의해 이뤄지므로 해당 내용이 중요하다. 회사가 사직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다면 권고사직이고, 그렇지 않다면 해고다. “이런 식이면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라고 하거나 “고객과 자주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만 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한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가 “그만 두겠다” 또는 “알겠다”라는 식의 사직의사 표현을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사가 “이번 달까지만 나오면 된다”라고 하거나 “그만둬야겠다”라고 명확하게 해고의사를 표시하면 해고로 인정돼 부당해고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도 사직권고 당시의 대화 내용을 핵심 쟁점으로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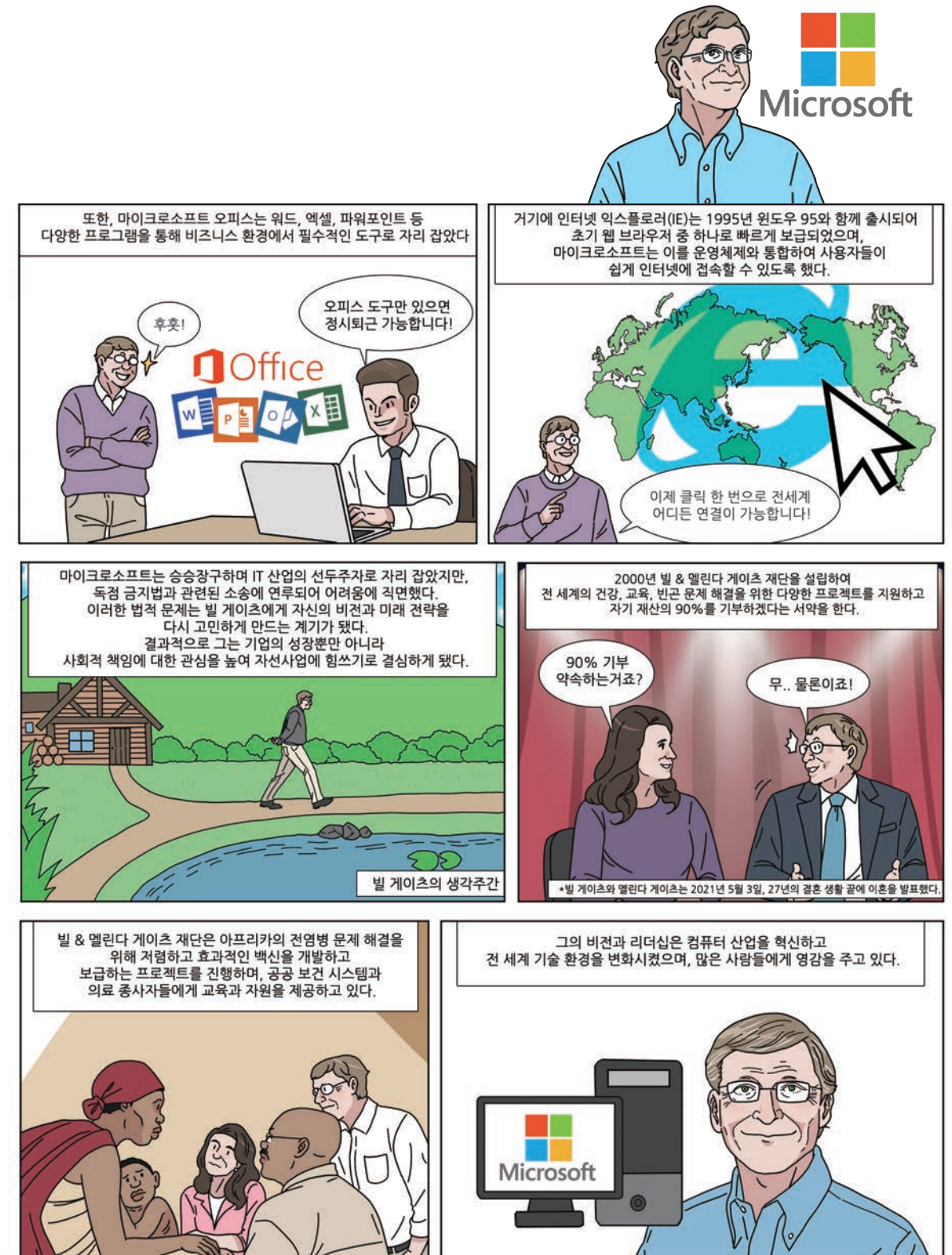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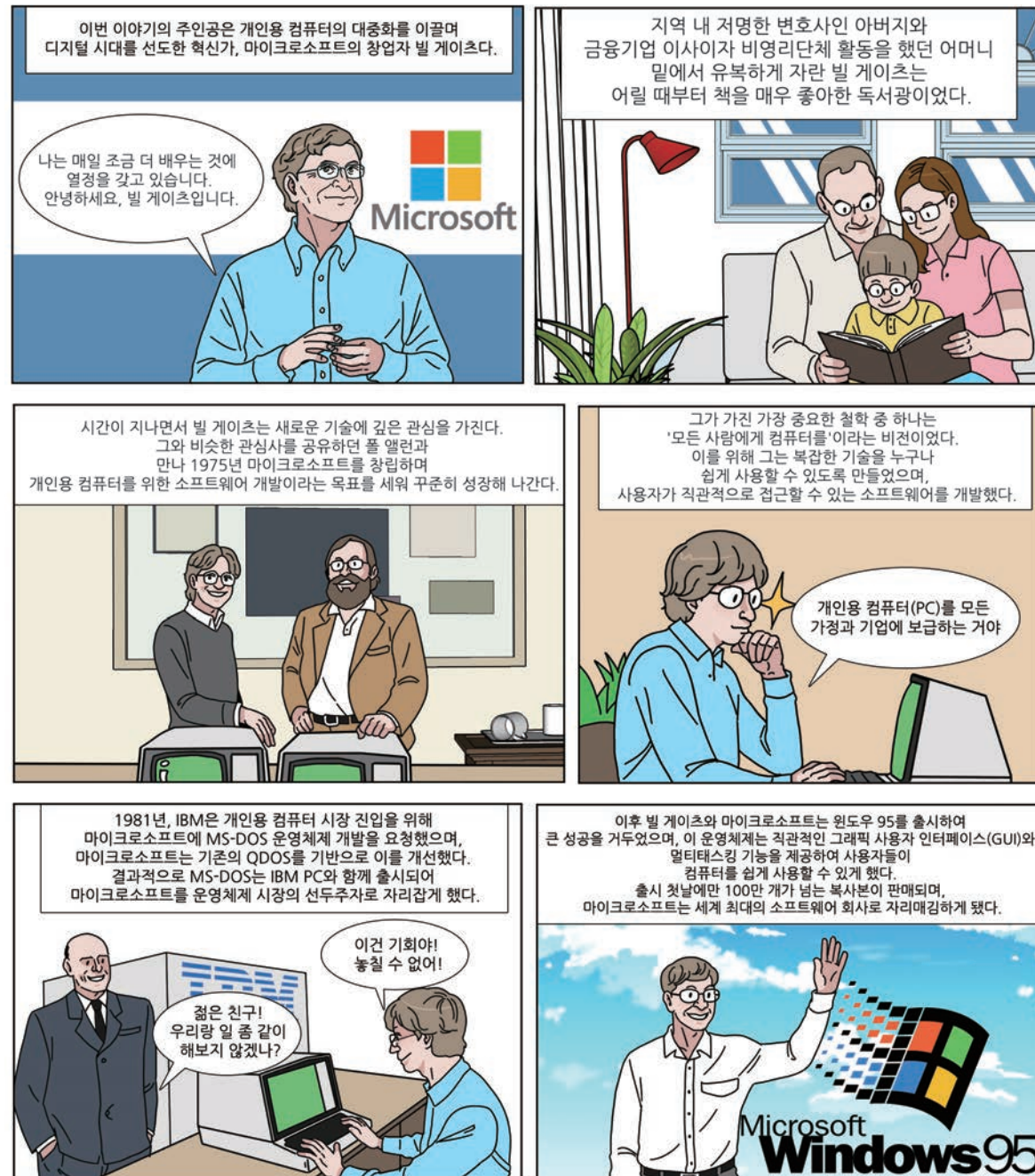
Q. 반대로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그런 경우도 가끔 있다.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절대 하면 안 된다. 어차피 회사와 입을 맞췄고 사직서도 ‘회사의 권유에 의해 사직함’이라고 작성했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권고사직도 해고와 마찬가지로 고용조정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받는 정부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 또 권고사직을 당한 직원이 만약 퇴직한 지 일주일 만에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노동부에서 바로 의심하게 된다.

Q.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 위로금을 주기도 하는데, 적정 수준의 위로금이 있나?

위로금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는 사유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회사의 잘못으로 다수의 직원을 퇴직시키는 것이므로 위로금을 많이 지급한다. 금융권의 경우 3~5년 치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대기업은 6개월~1년 치, 중소기업의 경우 3~6개월 치 정도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특정 개인이 회사 내 문제를 일으키거나 성과 또는 역량이 저조해 징계성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해도 1~2개월 치로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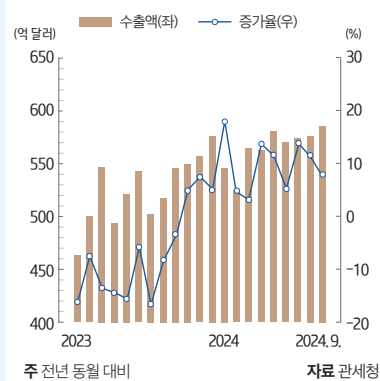
‘컴퓨터 천재’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한 눈에 읽는 경제 동향

KOREA

수출



수출, 12개월 연속 증가

9월 수출 총액은 588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했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이 모두 증가하면서 수출 호조 흐름을 이어갔다. 10월 1~10일(조업일수 고려) 기간의 수출도 9.0% 증가하는 등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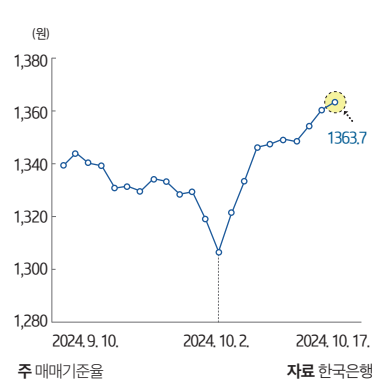
※ 품목별 수출증가율(% , 전동비) : (반도체) 36.7 (승용차) 6.4 (선박) 76.4

한국은행, 기준금리 25bp 인하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물가안정, 외환시장 리스크 완화 등을 근거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인하였다. 이로써 긴축 시작 이후 38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에 돌입했으나 국내 가계부채 증가 우려, 물가·환율 재상승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change Rate

달러/원 환율 동향



10월 환율은 1,300원 초반에서 1,364원까지 큰 폭 상승

(2024년 10.2일 1,306.9원 → 10.11일 1,349.4원 → 10.17일 1,363.7원)

지난 달 미 빅컷 이후 1,300원 초반까지 급락했던 환율은 중동발 긴장이 고조되고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어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어 발표된 견조한 미국 고용지표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급등세를 이어갔다. 이후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인한 기대감과 한은의 매파적 금리인하로 상승세가 제한되며 횡보하던 환율은 전 세계적 강달러 기조와 북한 리스크 대두로 두달만에 1,360원대로 진입했다.

2024년 4분기 말 환율 전망은 1,313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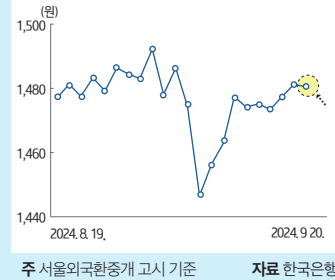
블룸버그에서 종합하는 주요 IB(11개사)의 2024년 4분기 말 달러/원 환율 전망은 평균 1,313원으로 조사됐다. '1,325원 이상'으로 전망한 IB가 4개사로 가장 많았다.

* 환율 전망 응답 시기 : 2024년 9월 12일~10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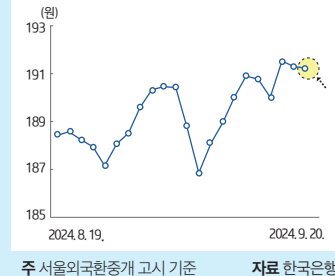
원/100엔 환율 동향



원/유로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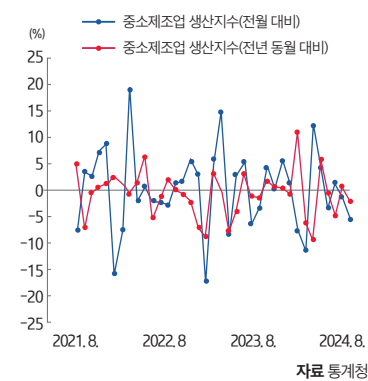


원/위안 환율 동향



Small Business Trends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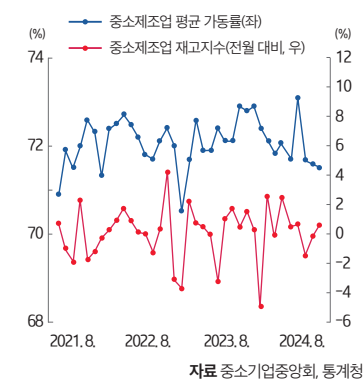


생산, 전월 대비 감소

2024년 8월 중소기업 생산은 전월 대비 5.6%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도 2.0%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자동차(22.7%), 반도체(6.0%), 기계장비(4.5%) 등에서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 감소한 업종은 통신·방송장비(-7.1%), 전자부품(-2.4%), 식료품(-1.8%) 등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반도체(10.3%), 석유정제(16.4%), 금속가공(9.2%)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기장비(-15.9%), 1차 금속(-2.9%), 전자부품(-2.8%)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가동률 및 재고



가동률, 전월 대비 감소

2024년 8월 중소기업 전체 평균 가동률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71.5%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소기업(5~49인)은 0.2%포인트 증가한 68.0%, 중기업(50~299인)은 0.5%포인트 감소한 75.4%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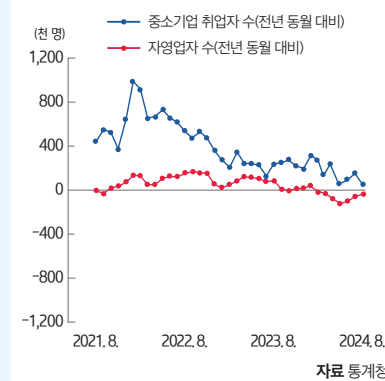
* 2023년 1월 조사부터 신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재고, 전월 대비 증가

2024년 8월 중소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통신·방송장비(27.56%), 전자부품(12.4%), 자동차(3.0%) 등에서 증가했으나, 석유정제(-4.4%), 화학제품(-1.1%), 음료(-10.1%)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재고증감률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고용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4년 8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 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업원수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3,000명이 감소한 반면,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6만 3,000명이 증가해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565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 중소기업은 중업원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감소

2024년 8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8,000명이 감소해 574만 5,000명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One-Point 경영컨설팅 SMART 조직 실시 안내

이달의 신규 테마

SMART 조직

SMART한 목표 설정을 통한 성과지향적 조직 만들기

Specific 구체적, **M**easurable 측정가능
Achievable 달성가능, **R**elevant 관련성
Time-bound 기한설정

성과지향적 조직 구축의 핵심 성공요소



1

WHAT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

2

WHO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조직 구축



3

HOW

주기적인 성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

주요 내용

① 전사 및 부문별 목표 설정

대상: 경영목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내용: 경영성과 분석 후 SMART한 전사 매출 및 영업이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영업, 구매, 생산 등 부문별 성과지표(KPI) 목표 설정

② 실행 조직 설계

대상: 전략 방향 및 목표에 맞게 조직 개편을 원하는 기업 등

내용: 조직운영현황 진단 후 전략, 목표, 자원(인력, 자본, 기술 등)을 고려하여 조직을 설계하고, 부서별 역할·책임(R&R) 정립 및 성과지표(KPI) 부여

③ 경영성과 모니터링

대상: 목표 달성을 위해 경영성과의 지속관리가 필요한 기업 등

내용: 전사·부서별 목표 달성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자 워크숍을 통해 부진 지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며, 필요 시 목표 및 업무 조정 지원

수행 방법

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신청 방법

거래영업점을 통한 신청

IBK 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560호(2024.03.20) 유효기간(2025.03.19) • 대출통로 BOX 관련 자세한 문의는 BOX고객센터(☎02-729-7633) 혹은 IBK고객센터(☎1566-2566)으로 연락 바랍니다. • 신청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회금이 부정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질없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은행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OPEN

당행 거래고객이 아니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O2O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은행이 알아서 연락하는 O2O 대출 서비스

ONE-STOP

복잡하고 다양한 대출심사 서류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제출



대출신청 바로가기